

漢拏曰邦 제8933호

제주의 대표 신문 **ihalla.**com

기사제보 750-2214 | 구독 750-2314 | 광고 750-2828 | **2019년 8월 27일 화요일**(음력 7월 27일)



초가을 길목··· 들꽃의 향연 처서를 지나며 지난하던 무더위도 한풀 꺾였다. 제주 들녘에서는 고운 빛깔의 들꽃들이 서로를 시샘하듯 새초롬한 자태로 피어나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. 사진 위 왼쪽부터 게박쥐나물, 수정난풀, 털사철난, 덩굴용담, 제주상사화. 아래 왼쪽부터 구상난풀, 비비추, 며느리밥풀, 사철난, 누리장나무. 사진=강희만기자

한라포커스

대중교통 개편 2주년 성과와 과제

## 이용률·인프라 증가… 과제도 산더미

이용객・노선 등 늘어… 중앙차로 주행 속도 개선 재정 투명성 제고·운송원가 절감 방안 마련 과제 道, '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' 연내 제정 등 추진

26일로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가 전 면 개편된지 2년째를 맞았다. 당시 30여년 만의 개편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은 반면 준비 부족에 따른 혼선 등으로 원성을 사기도 했다. 개 편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성과와 과 제를 되짚어본다.

제주도의 통계를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용객 증가를 견인한 것으 로 나타났다.

대중교통 이용객수는 개편 전 2769 만2996명(2017년 1~6월)에서 개편 392만1539명(14.2%) 증가했다.

일평균 이용객수도 개편 전 15만 늘어났다. 가로변차로 속도 기존

3000명에서 개편 후 17만4666명으 로 2만여명이 늘어났다.

대중교통 인프라도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. 버스는 기존 556대에서 329 대 늘어나 88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, 운전원 수도 기존 671명에서 1681명 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. 정류장 수 ▶개편 후 노선 확대·속도 개선= 는 기존 3054곳에서 현재 3673곳으 로 619곳이 늘어났고, 노선수가 기존 89개에서 현재 192개로 급증했다.

특히 대중교통 속도가 개선돼 만 족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다. 제주도 대중교통우선차로 모니터링 용역 결 후 3161만4535명(올해 1~6월)으로 과에 따르면 중앙차로는 시행 전 시 간당 13.2km에서 시행 후 19.0km으로

조미영의 마을탐방… 7면 / 이방익 표류현장을 가다… 9면

12.0km에서 15.6km로 개선됐다.

오는 9월 상용화되는 고정밀 버스 위치 정보서비스에도 기대감이 모이 고 있다.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 동데이터와 민간부문 플랫폼과의 결 합 서비스로,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 (GNSS)를 통해 버스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. 이 서비스는 '국민공감 최우수사례' 2 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.

▶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도 '삐그 덕'=성과만큼 과제도 적잖다. 우선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과 운송원가 절감 방안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

에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 면서 회계감사를 업체에 맡겨 '셀프 을 검토하고 있다. 감사'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.

준공영제 사업비가 올해 972억원 이 편성되는 등 이러한 추세라면 10 년 후 지원액이 2조원에 달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.

도 삐그덕 거리고 있다. 기본구상 단 에 주문했다. 이소진기자 si@ihalla.com

계인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는 한국공항공사 2단계 사업과 중복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 타당성 조사 중인 서부 외곽 복합환승센터는 평 화로 우회도로(광령~도평) 사업과 맞물려 환승수요 감소 등이 우려되 고 있다. 비용이나 부지 확보,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추진 방향 재검점 등이 요구되고 있다.

제주도는 부정행위로 3년 내 3회 이상 환수 등의 처분받은 운수업체 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제외하는 '버 스준공영제 운영 조례'를 연내 제정 한다는 계획이다. 또 빈차운행 개선 과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공영버스 제주도는 막대한 혈세를 버스업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버스 중앙차로 확대, 신교통수단 도입 등

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주간정 책 조정회의에서 "도민 의식 정착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보다 신 중하게 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꼼꼼한 후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속대책을 수립해 달라"고 담당부서

##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전

## 道, 특별방역상황실 운영 불법반입금지 캠페인 병행

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(ASF)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9 월 1일부터 도·동물위생시험소·행정 시 등에 '특별방역대책상황실'을 설 치·운영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.

도는 특히 9월 추석연휴는 인적・물 계획이다. 적 교류가 많아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ASF원인체 가 유입 될 수 있는 위험경로에 대해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.

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

해 해외여행객을 통한 불법축산물이 도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 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 전에 불법반 입금지 캠페인도 진행한다.

제주항과 제주공항을 통해 입도하 는 입도객과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 독을 실시하고, 축산관계자 및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독을 거쳐 병원체 유입을 철처히 차단해 나갈

양돈농가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농장별 담당관제(289농가 127명) 운 영도 강화해 주1회 이상 현장·전화 예찰 등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방역 도 추진된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## '국가 핵심바다숲' 조성 가능성 탐색

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조성본부, 정밀조사 용역 공고 지귀도·우도·비양도 등 4곳 생태 탐색… 전국 첫 시도

제주도에서 '국가 핵심바다숲' 조성 사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.

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조성본부는 지난 23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 터에 국가 핵심바다숲 탐색(제주 4 개소)을 위한 생태 정밀조사(1년차) 용역을 공고했다. 개찰일은 오는 9월 3일이며, 예산은 2억1008만원이다.

국가 핵심바다숲은 해양수산부의 국가 바다숲 조성관리 중장기 계획 에 의거해 해양생태적 중요지역인 천연해조장을 탐색하고 국가 차원의 장기·집중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이번 용역은 제주에서 국가 핵심 바다숲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 하는 것으로, 전국 첫 사례다.

탐색 대상지는 지귀도・우도・비양 도·형제섬 등 4곳이다. 과업면적은 1 곳당 100ha로 총 400ha에 이른다.

과업지시서를 보면 이번 용역에서 는 수질 특성과 같은 해양환경과 핵 심바다숲 인근 어업활동을 살펴보는 사회현황을 비롯해 수심분포, 해상지 장물 및 이상체 분포 등을 조사한다. 아울러 ▷핵심바다숲 면적 및 생태 현황 조사 ▷서식생물상조사(해조류

태조사 ▷핵심바다숲 생태정보도 작 성 ▷핵심바다숲 기준(안) 및 확대방 안(안) 제시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.

다만 국가 핵심바다숲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등이 적용돼 어로활동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.

공단 관계자는 "바다숲은 생태계 복원이 목적이라면, 핵심바다숲은 보 호·보존이 목적"이라며 "올해 제주 지역 조사를 마치면 내년부터 동해・ 남해·서해 등으로 탐색사업을 확대 할 예정이다. 이후 시범적으로 1~2곳 을 최종 선정해 집중 관리할 것"이라 고 설명했다. 이소진기자



